

The National Flag

태극기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 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 ·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 · 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 · 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 ·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승계한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었으며,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 · 시행되어 오다가, 최근 「대한민국국기법」(2007. 1월)과 동법 시행령(2007. 7월) 및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이 제정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태극기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란색)과 양(陽 : 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 :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 : ☷)는 땅을, 감괘(坎卦 : ☵)는 물을, 이괘(離卦 : ☲)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변역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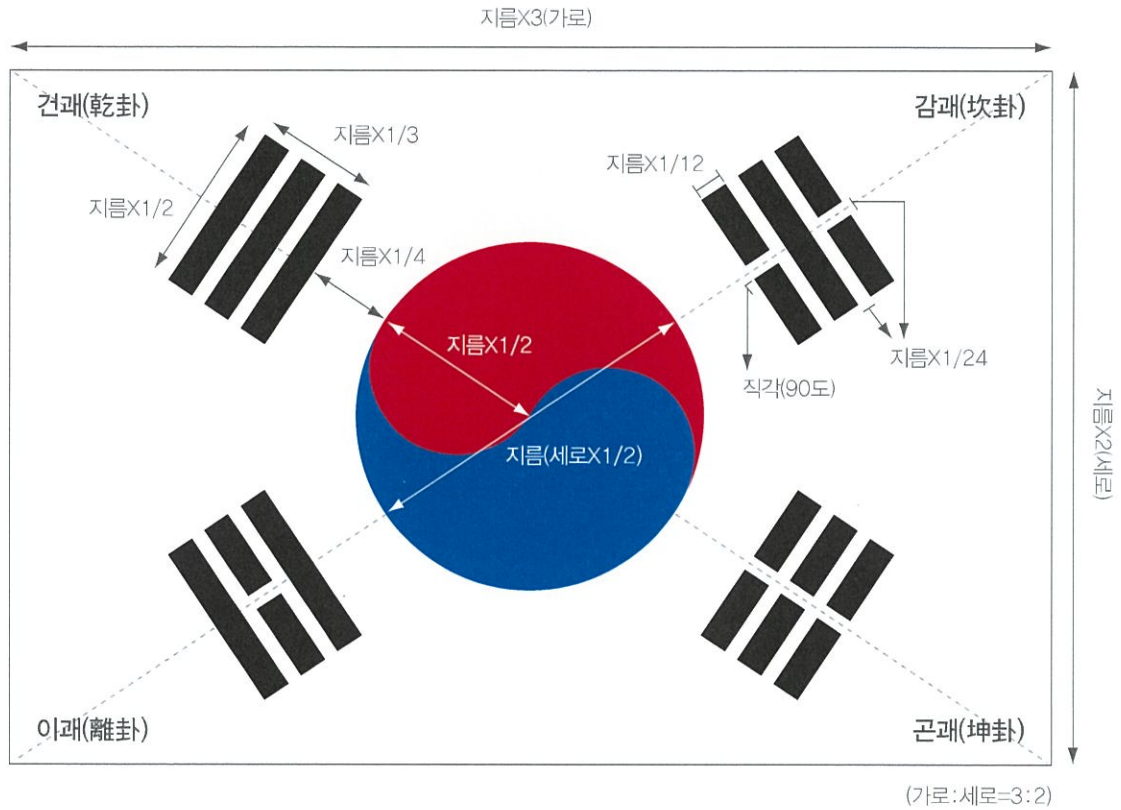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문

(2007.7.27. 개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의 제작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 태극기의 표준색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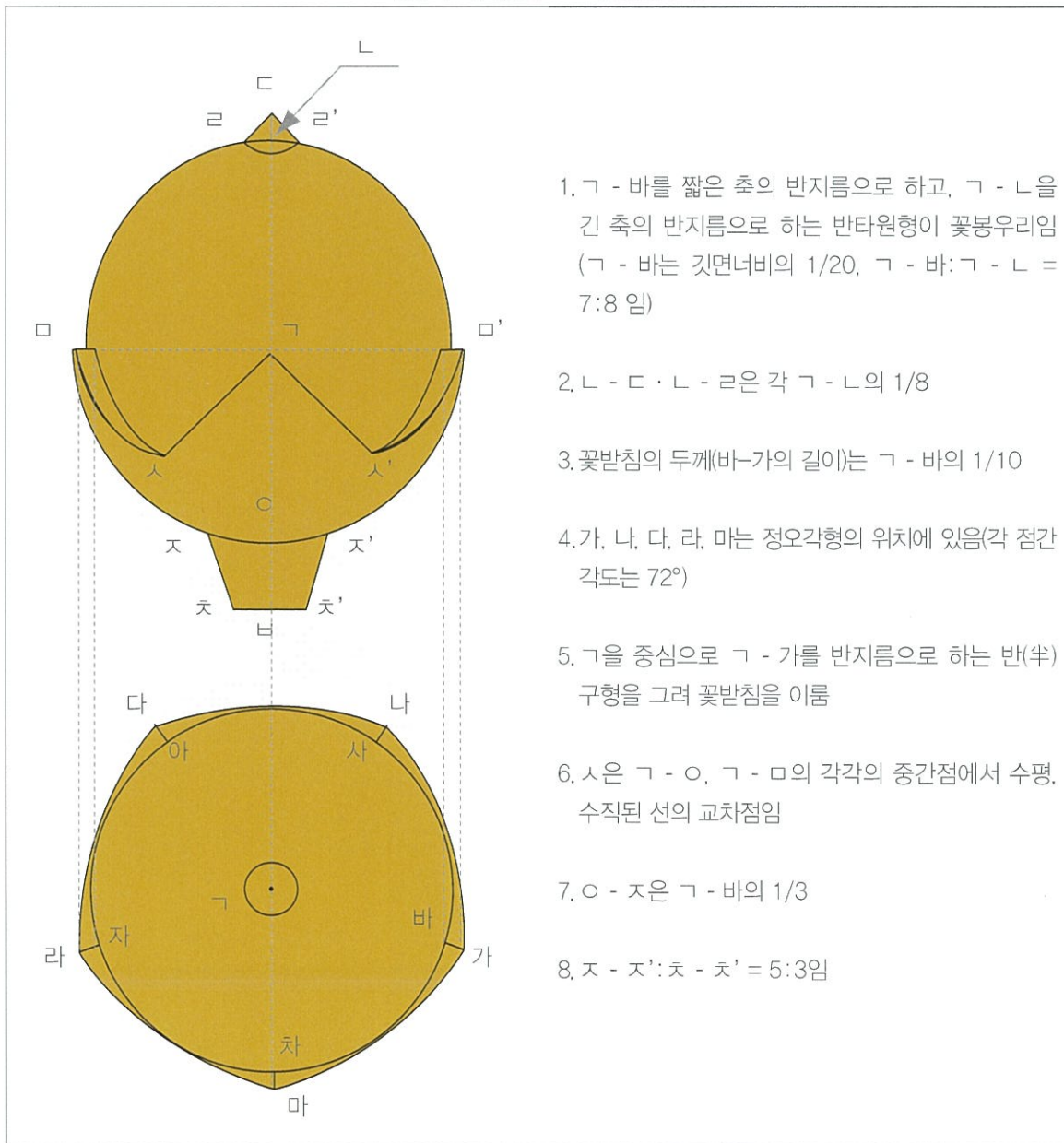
색 이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색 표시 방법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 깃대, 깃봉의 제작

-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깃봉의 제작방법> - 색깔(황금색)



국기의 게양

•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일(3·1절) • 8월 15일(광복절) • 10월 3일(개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7일(제헌절) •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9일(한글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 게양		
• 6월 6일(현충일)	• 국가장 기간	

•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각급 학교, 군부대 (낮에만 게양)
-------------------------	-----------------------

•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 24시간 게양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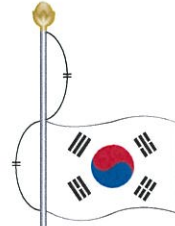
• 국기를 게양하는 시간

- 국기는 매일 ·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를 매일 실시)
- 국기가 심한 눈 ·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 국기를 매일 게양 · 강하하는 경우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 3월 ~ 10월 : 07:00~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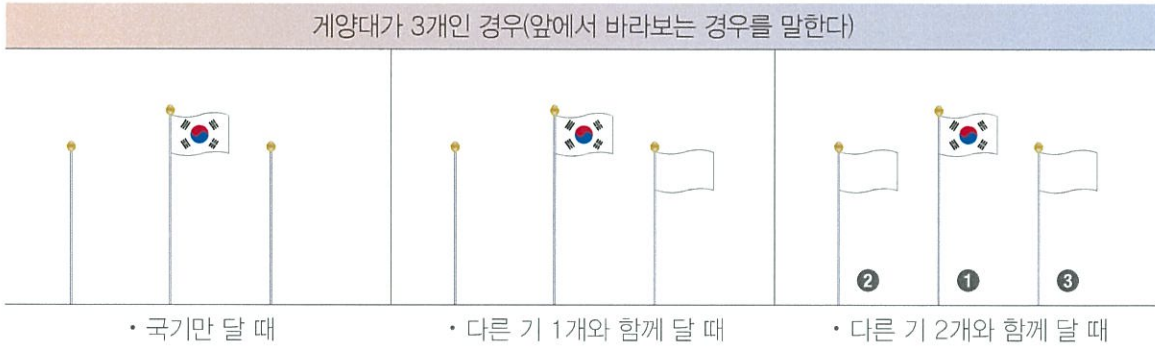
•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일 및 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현충일 · 국가장기간 국민장일 등 	
--	---	--	---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20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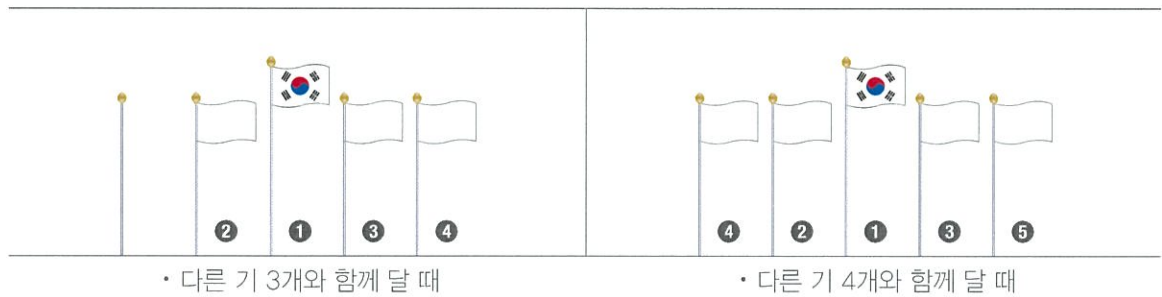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동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개정(2008.7.17.) 이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게양대가 5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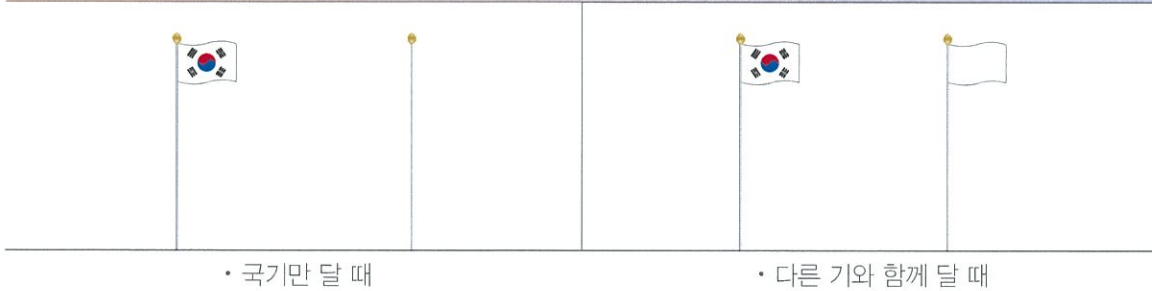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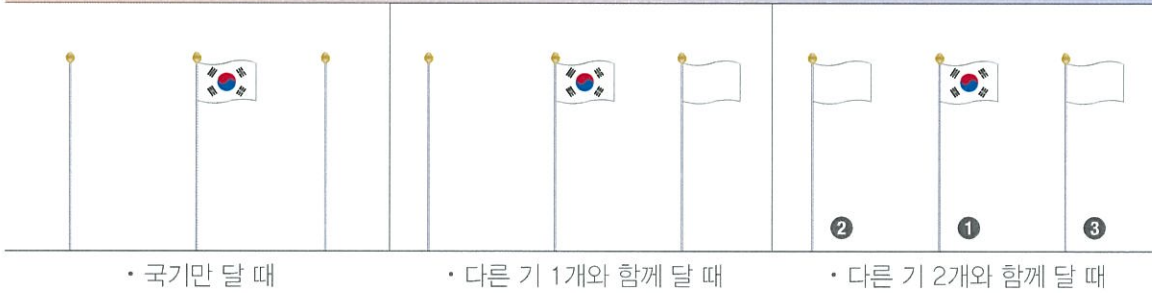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20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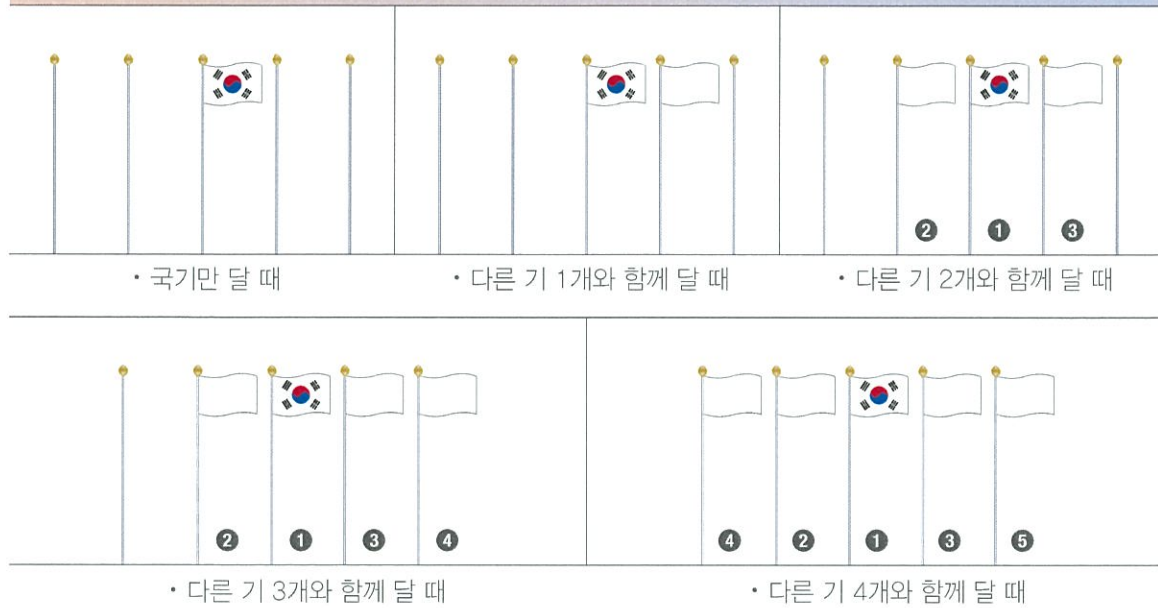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5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유엔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 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 국기의 게양 위치

▶ 단독주택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실내게시용 국기틀은 2002년 정부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태극기 사랑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국기틀의 규격 및 종류

▶ 국기의 규격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mm×300mm)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 국기틀의 규격 : 1종(2개 색상)

형태	크기	재질	색상
좌우보필형	밀판 574×350mm 원형목 32mm(지름) 두께(국기부분) 18mm	목재	밤색, 연한밤색

<국기틀 사진>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 게시 위치

주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의 관리 및 선양

• 국기의 보관 · 관리

-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 · 보관할 수 있다.
- 국기(게양용, 차량용, 수기용 등 모든 종류)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 ·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 ·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 ·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깃봉 포함)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 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특히, 깃봉의 색상이 황금색이 아니거나 변색된 경우 황금색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함

<국기수거함 표준모델(예시)>



- 규격 : 가로 60cm×세로 50cm×높이 95cm
- 재질 : 합판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및 제한

- 국기 또는 국기 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 물품
-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한다.

• 국기의 구입

-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국기판매대(안내표지) 설치 우수사례>

